지역 소식통

고창군 '음압구급차' 배치

고창군이 코로나19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신식 '음압구급차'를 신규로 배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압구급차는 2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응급구조장비세트, 환자감시장치, 저출력심장충격기와 음압캐리어(환자이송들것)를 비롯해 차량내부에 음압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또 운전석과 환자 탑승공간의 상호호출과 통화가 가능한 음향시스템 등이 완비됐다. 여기에 쏠라티를 기반으로 한 구급차로 넉넉한 공간확보와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 최현숙 소장은 "확진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군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음압구급차의 배치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부안군, 코로나 선제검사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검사는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증가 및 노인복지시설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사전검사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어르신이 생활 및 이용하는 요양원, 주간보호,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45개소이며, 총 1,166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부안군은 지난 16일부터 위 시설을 대상으로 KF94마스크 1만개와 덴탈마스크 5,000개를 배부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선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한우 차별화 올인

개량 · 기반육성 주력, 14개 사업 7억원 지원… 고급육 생산 체계 구축

고창군이 고창 한우의 차별화를 위해 '한우 개량과 기반육성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올해 한우 등록과 선형심사, 수정란이식 등 14개 사업에 7억원 가량을 지원해 고급육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수컷 위주의 한우 개량체계에 암소개량을 병행해 개량 효과를 높였다. 여기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 소득도 높아져 가고 있다.

실제 고창에선 고급육 출현율(1등급 이상)이 2014년 60%에서 지난해 75%까지 높였다. 올해 고창지역 고급육 출현율은 78%에 달한다.

고창군은 내년 도내 가축시장 거래소의 친자확인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자확인 검사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의 DNA 자료를 등록할 때 제출한 수정표의 아비와 친자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송아지 경매 때 정확한 혈통정보를 제공해 고품질 한우 개량 및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고창군 이동태 축산과장은 "한우협회 고창군지부와 지속적으로 한우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체계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여 고창 한우민의 차별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한우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한 고창에서 사육되며 혈통, 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전국 최고 품질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8년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국빈만찬에서 주요 메뉴로 테이블에 올랐다. 이후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해 정기적으로 판촉전이 열리는 등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제설 대책 준비 철저하게"

겨울철 재난 대비 현장 점검

유진섭 시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 한파에 따른 도로결빙 등 겨울철 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제설 대책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 한파에 따른 도로결빙 등 겨울철 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제설 대책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갑작스러운 대설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 시장은 도로 장비 관리소와 급경사지 도로를 방문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설 대책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다. 또, 제설 자재 확보 현황과 관리실태, 모래주머니 비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 체제 가동 등에 대한 부서 간의 신속한 협업 방안 등도 모색했다. 특히, 급경사 도로인 말고개 도로 열선 설치 상황과 코아루아파트 옆 도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도로 보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설 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제설작업을 당부했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63개 노선 408km 구간에 대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뤄지도록 제설 장비와 자재 등을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도로 설해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제설 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최우수'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평가(245개 지자체)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얼마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정읍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주민서비스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개방자원 확대(공유누리 등록 자원 수) ▲정부24 이관자료 정비(공유누리 자원 정비) ▲서비스 홍보 노력(공유누리, 자체 개방 공유 서비스 등)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자체 서비스 개선사례 ▲서비스 만족도(이용자 만족도, 국민평가단 만족도) 등 총 5개의 지표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코로나 취약시설 2차 전수검사

고창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2차전수검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인근 지역과 전국에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은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20개소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전수검사는 고창군노인요양원 종사자와 이용자 127명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총 20개소(요양병원 4개소, 노인요양시설 7개소, 노인주야간보호센터 9개소)에 대해 1620여명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창군보건소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시설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10일~16일 실시한 1차 검사결과는 요양병원 4개소, 노인요양시설 7개소, 노인주야간보호센터 9개소 총 983명에 대해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으로 나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위기가구에 '2차 재난지원금'

2792가구, 총 15억3000만원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 · 폐업 등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2,792가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온라인과 주민센터를 통해 3,247가구의 신청을 받았으며,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2,792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총 15억3,300만원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신청요건도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감소'로 완화했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용근로자 취약계층 등을 집중 발굴했으며, 당초 2,500여 가구 목표를 훌쩍 넘어선 3,247가구의 신청을 받았다.

또한, 소득감소 신고서만으로 신청한 2,354가구에 대해서는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로 인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차로 조사 완료된 140가구에 지난 4일 1억260만원 지급을 완료했고, 이후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952세대 총 5억 1800만원 긴급생계지원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952세대에 긴급생계지원금 총 5억 1800만원을 1차(12월 4일)와 2차(12월 18일)에 걸쳐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11월 30일까지 온라인(복지로) 신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을 통해 총 1,035가구의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 · 재산 조사 및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총 952세대를 최종 선정하고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으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했다.

부안군은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소득이 감소하거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은 윤모씨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많이 힘든 상황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인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